



1. 희망2012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참여를 바랍니다.

『희망2012 따뜻한 겨울보내기 캠페인』은 관내 거주하시는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종로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실시하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정성은 이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모금된 성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연중 내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우리 모두가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함께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추진기간/ 접수처 : 2011. 12. 1.부터 평창동주민센터
- 문의처 : 평창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김미란 ☎ 02-731-0877

2. 서울디딤돌사업 기부업체 참여 안내

지역 내의 상점, 학원, 기업체, 개인이 자율적으로 기부(서비스, 물품)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 받은 이웃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여 “나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분야

- 보건·의료·위생 : 병·의원, 약국 무료 진료 및 약품 지원
이·미용실, 목욕탕 무료이용
- 교육 : 학원, 개인교습소 무료수강
- 문화·예술 : 공연장, 극장 무료 공연관람
- 외식·생활용품 : 슈퍼마켓, 식당의 음식, 생활용품 제공
- 교통·이동지원 : 운수회사의 이동 및 이사 지원
- 법률·기타 : 무료 법률상담, 각종 서비스 및 물품지원

■현재 참여중인 업체 : 22개소

- 강촌삼밥, 광신, 그린하우스, 꽃여울, 능금산장, 뉴동양캐센터, 덕성관, 명성익스프레스, 비봉휴게소, 산길, 산장집, 섬진강민물장어, 이조갈비, 이천영양돌솥밥, 정관장, 초가집, (주)SM메디칼, 코스코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평창점, OK부동산, 피자헛(평창점), 다인치과

■평창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김미란 ☎ 02-731-0877

2012년 평창동 신년인사회



평창동주민센터에서는 2012년 1월 13일(금) 오후14:30 평창동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2012년 동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비롯하여 남재경 시의원, 안재홍 구의원, 현택정 구의원, 전치호 종로구교구협의회장, 조기원 교통협의회 총무 등 직능단체장 및 지역유지, 동민 등 7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직접행사로 진행된 특별공연에서 자치센터 기타공연과 서울예고 현악4중주는 애플요청을 받기도 하였으며, 평창동 구기동 현안업무보고와 함께 건의사항등 주민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동장이 주민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좁은로서 주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사랑의 빛을 평창동 구석구석에

2011년 11월 14일(수) 오후 5시 30분 평창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평창동교통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평창동주민센터 입구에 성탄트리를 설치하고 남재경시의원, 현택정 구의원, 종로구 교구협의회장 전치호 목사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사랑의 성탄트리점등식' 행사를 가졌다.



손중호 주민자치위원장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성탄트리점등식이 교통협의회와 함께 진행되어 기쁘다며 좋은 연말행사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정성욱 평창동장은 “이 행사를 계기로 교통협의회를 중심으로 평창동을 더욱 밝게 하는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별히 성탄메시지에서 평창동 교통협의회장 조건희 목사는 “성탄트리의 불빛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며 교통협의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관내의 모든 어두운 곳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하였다.

정성을 듬뿍 담은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우리가꿈꾸는교회(담임 조기원 목사)는 연말을 맞아 2011년 12월 6일 정성을 듬뿍 담은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가 5Kg짜리 50박스를 평창동 주민센터와 부암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독거노인과 홀부모가정 등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였다.



매년 김장김치를 담가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우리가꿈꾸는교회 조기원 목사는 “한국사람은 아무리 좋은 반찬이 있어도 김치없이 살 수 없는 것 같다”며 “겨울나기를 위하여 가장 좋은 선물은 역시 김장김치이고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것도 김치의 힘인 것 같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초청 『사랑나눔 잔치』 개최

평창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예능교회(세검정로 363-5 담임 목사 조건희) 후원으로 2012년 1월 15일 오후 5시 저소득한부모가정 21세대와 자녀들을 초청하여 사랑나눔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뷔페식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10만원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전달하였으며 참석자녀들을 위해서는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선물로 도서상품권도 증정하였다. 자녀 양육 및 생활고로 지친 모자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행사는 자동차 판매왕(박상면)미술공예와 색소폰 연주, 민요가수 김부자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우품 L&S(엘엘에스) 봉사단

우품L&S봉사단은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나기를 준비하며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봉사는 평창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두 곳 (화정박물관 안쪽, 금강하이츠)의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추워지기 전에 안락한공간을 만들어 드리려는 팀원들의 이름다운 손길은 도배지에 풀칠을 하느라 장판을 관하게 펴느라 분주했지만 즐거운 마음에 연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다.

우리가 꿈꾸는교회는

예배안내

- 1) 세검정 지역의 기도 회복 운동을 시작으로 기도가 살아있는 민족공동체
- 2)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국가공동체
- 3) 그리스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신앙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울타리입니다.

담임 조기원 목사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39번지
홈페이지 : www.fdc.or.kr
☎ 02-379-4137, 010-4379-0191

예 배	시 간
새벽 주님의 만남	새벽 5:30
축복과 영광의 예배	주일 낮 11:00
찬양과 감사의 예배	주일 밤 7:30
거룩한 동행의 예배	수요 밤 8:00
우품어린이예배	주일 낮 2:00
우품청소년예배	토 요 일 4:00
요셉의 꿈 기도모임	목요일 밤 9:00
안 나 기도 운동	금요일 밤 11:00

세검정 관내에 일어나는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와 좋은 기사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체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우품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Fellowship Dream Church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39번지 / www.fdc.or.kr
☎ 02-379-4137, 010-4379-0191

무료 구독 문의 및 광고 접수
02-379-4137, 010-3017-6848



그물을 넓게 쳐야 행운이 걸린다 3면



새해맞이 건강관리 3계명 12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뇌의 힘 14면



제작 문의 02-442-0591 주소창 : 아름다운신문

우리가 꿈꾸는 세검정 아름다운신문

위대한 지역신문
2012년 1월 22일 / 제 3호 / 발행인 조기연
세검정아름다운신문 : 02) 379-4137

신년호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謹賀新年
새해는 새로운 시작과 기쁨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새해가 밝아 오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새해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10주 완성 클래식기타 교실

클래식 기타와 통기타를 한번에 배워 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강사: 허 경 수

★ 3월 수강생모집 ★

- 월요 오전반 :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개강
- 화요 저녁반 : 3월 6일 오후 8시 개강
- 회 비 : 전액 무료
- 교재비 : 1만원

▶ 우꿈기타교실 : 379-4137, 010-5238-8360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재경

평창동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창동은 주민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 단지와 문화와 예술이 새롭게 꽃피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동안 평창동을 잘 가꾸고 발전시켜주신 주민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주민여러분과 함께 모여 평창동과 관련된 많은 사업 추진과정을 설명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평창동은 그동안 각종규제(그린벨트, 자연경관지구, 군사보호구역 등)에 묶여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동네가 멋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창동 전체를 그 틀 속에 묶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잘 어울리는 동네를 제대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도로와 인접한 곳 등은 각종 규제에서 해제해서 재산권

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평창동주민여러분!

지난 추운겨울 주민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평창동의 새로운 힘을 보여 준 일은 두고 두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세상이 활짝 열렸습니다. 평창동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가령,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일,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심는 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가로수를 정비하는 일, 하천을 예쁘게 잘 가꾸는 일, 해마다 되풀이 되는 수해를 방지하는 일 등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 또한 발로 뛰어 가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준 평창동주민과 함께 새해를 열었습니다. 평창동주민 한 분 한 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큰 절 올립니다.

서울시의원 남재경 올림



안재홍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아침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새해 아침에 복을 기원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이의 염원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복 받는 삶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하셨을 때 거역하지 않고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난 그의 삶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됩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안재홍 올림



전치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검정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2012년에는 마음의 소원들이 성취되는 은혜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검정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역 내에 어려움과 슬픔에 빠져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소망을 주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관내의 모든 교회들이 접이 아닌 선으로 이어져 빛과 소금의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종로구 교구협의회 회장 전치호 목사



조건희

2012년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떤 변화가 세상에 있어도 평창, 구기, 신영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께서 평안하고 형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드림센터(카페, 소극장, 체육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를 건축해서 더 잘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더욱 강건하시고 행복하세요.
평창동 교동협의회 회장 조건희목사



현택정

임진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올리며 새 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생활 중심,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하였으며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지만 여러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임진년에는 흑룡의 기운을 받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작은 소리, 지나치기 쉬운 일들조차 깊이 생각하고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신발의 끈을 단단히 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조선의원으로써 부족한 점을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새 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택정 구의원 올림



조기연

세검정 지역 주민 여러분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2년 각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기뻐하는 설명절이 되시고 올해에는 식구들 모두가 영과 육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세검정이 하드웨어만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아닌 세검정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국부(國父)를 비롯한 많은 일군들을 뽑는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일군들이 배출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기를 소망하며, 2012년 제30회 런던올림픽에서도 태극전사와 소녀들의 멋진 경기를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검정아름다운신문 발행인 조기연 목사

우리가 꿈꾸는 삶의 이야기

어느 가구점 주인의 친절

김용미

오래 살다보니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내어줄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웃을 풍요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자합니다.

이야기는 미국의 가구점 거리에서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분이 가구점이 모여 있는 거리에서 여기 저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할머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데 한 가게의 주인이 그 할

머니를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가구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차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라고 말하자 주인은 “안 사셔도 좋습니다. 편히 앉아서 구경하세요”라고 친절하게 말하며 할머니가 기다리는 차번호를 적더니 몇 번이고 밖에 나가 차가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장사나 잘 할 것이 오질않도 넓기는...쯔쯔” 그러나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 올 때까지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절하게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그는 깜짝 놀랄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재벌인 강철왕 카네기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비오는 날 저의 어머니께 친절을 베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의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고향 스코틀랜드에 대저택을 지을 예정인데 그곳에 필요한 모든 가구도 당신에게 의뢰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가구점 주인의 작은 친절이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은 우물 나중에 다시 찾는 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밝고 밝은 환한 태도로 이웃을 대하면 결국은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노인 놀이치료를 배우며...

정덕임 교사 (청운데이케어노인요양센터)

오후 다섯 시 쯤... “파르릉~ 파르릉~”

그렇게 기다리던 이화여대 노인놀이치료 수강 관련된 전화가 왔다. 나는 한 달음에 달려가 기쁨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 이 무슨 말인가? 나의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가 문제가 생겨 수강이 어렵다는 것이다.

내일이면 첫 수강인데 이번 강의를 놓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서둘러 읍지로에 위치한 노동부로 향했다. 하지만 지금 신청하면 발급은 1주일 후에나 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대답뿐이었다.

“하나님~! 제가 이 노인놀이치료 수강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죠? 제발요~!”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동부 직원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저기요 선생님! 저는 이 과정을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 센터에 계신 어르신들이 놀이를 얼마나 즐겨워하고 기뻐하시는지 그분들 얼굴의 미소만 보면 너무 행복하네 이번에 못 받으면 그분들을 더 즐겁게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당장 내일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과 난처한 사정을 들은 노동부 직원 잠시 고민하던...

“그런 마음이라면 특별히 도와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일찍 신청해 주세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노동부직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듯하였다.

놀이치료 일반과정을 교육받고 많은 도움이 되었던 나는 이번 심화과정에 상당한 애착과 열의를 가지고 수강했고 수강한 내용은 그 다음날부터 센터 어르신들께 직접 적용해 들어갔다. 특히 아침 ‘출석체크’ 프로그램은 나와 어르신, 어르신과 어르신 사이에 대인관계 회복 및 유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서로를 기억하는 인지력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마도 어머니와 할머니,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살아온 50~60년의 세월 탓에 이롭고 살고 있던 분들이 ‘아침 출석체크’를 통해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았다.

신체 기능과 관련한 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부분에서 ‘노들강변’, ‘아리랑’ 노래의 체조는 노래도 어르신들에게 익숙하고 따라 하기 쉬워서 대단히 즐겨워들 하시며 참여하셨고 같은 동화지만 견우와 직녀, 삼년고개, 금도끼 은도끼 등의 시청각 자료를 어르신들이 직접 색칠을 하고 만들어 시연했던 역할극 수업 시간은 정말 효과 만점이었다.

또 음악과 관련한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집에 왜왔니? 왜왔니?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읊조리는 부분이 많아 힘들지는 않으실까?” 우려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정말 전체 어르신들이 편이 나누어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에 당당히 나라도 추억열차를 타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며 추억 속으로 함께 뛰어드셨고 금강아 한쪽 편마비하신 송어르신까지 “나도 할 수 있을까?” 하시더니 직접 참여하시며 너 나할 것 없이 어린이처럼 무척 좋아들 하셨다.

노인 놀이치료를 진행하면서 나와 어르신 모두는 소중한 추억 속으로 아주 즐거운 여행을 다녀왔다. 오늘도 우리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사랑의 속삭임들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진다.

“난 소중한! 난 귀하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하하하.....호호호호.....”



2011년 회고(回顧)

“우품孝잔치”

고인규 (우품실버팀장)

할렐루야! 새로운 한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1년 우품실버선교팀 팀장으로서 처음 책임을 맡고 진행함에 두려움도 있고 열려도 있었지만 진행되어지는 과정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느끼는 한해였습니다.

우품실버선교팀의 첫 번째 사업인 ‘어르신초청 우품孝잔치’은 특별히 지난해를 돌아보며 마음에 깊이 남는 행사였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먼저 작성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세검정지역 노인정을 두팀으로 나누어 방문하였는데 어르신들을 만나니 모두들 기뻐하시며 참석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시니 더욱 자신감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순조롭게 어르신들의 인원을 점검하고 식당을 예약하고 공연팀 섭외하고 나니 오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1회 공연을 2회 공연으로 늘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잔치가 널리 알려졌다는 것에 무척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행사 전날엔 교회지장과 무대준비를 하였습니다. 손님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사모님과 집사님의 꽃꽂이와 성도들이 있는 솜씨, 없는 솜씨 총동원하여 만든 어르신들의 가슴에 달아드릴 코사지는 감동이었습니다. 코사지 만들면 손이 모자라 장로님과 남자 집사님들까지 꽃을 자르고 리본을 만들어 묶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품의 땀방울의 기쁨이 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회상만 해도 눈가에 기쁨과 감사의 이슬이 맺어집니다.

목사님의 총 지휘 아래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고 바나나정소, 창틀 먼지제거까지 신경을 쓰고 100개가 넘는 풍선을 불어(물론 기계의 힘을 빌려서) 교회현관입구에 세울 아치를 만드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행사 당일 오실 어르신들과 공연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마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행사 당일 역시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름답게 한복을 차려입고 불편하지만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되는 우품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숙대 박순자 교수님이 이끄시는 선교무용팀의 은혜로운 무용과 신나는 춤사위는 보는 어르신들이 어깨춤을 추게 하였고 예소울 국악팀의 아름다운 선율엔 모두들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였습니다.

또한 공연 중간 중간 행복함에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공연도 공연이지만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박수치며 노래하고 공연을 관람하고 식사까지 원활하게 끝나고 난 뒤 한숨 돌릴 때의 기분은 함께 준비하신 모든 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던 어떤 어르신께서는 “내가 만일 내년에라도 살아있다면 여기 이 교회에 효잔치를 다시 보려하면 좋겠다”고 하시고, 또 어떤 어르신은 나를 껴안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그 어르신의 포옹은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가 혹시 이런 뜻은 아니었을까요... 2012년을 다시 시작하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목사님과 온 성도가 기도 하는 교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충성하여 복 받는 교회! 라고 외쳐며 글을 마칩니다.



담임목사 권병기



구기동영광교회 성전 입당 감사예배 및 구기아트센터 개관기념 축하공연

일시 : 2012년 2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구기동영광교회



구기아트센터
GUGI Art Cente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226-27번지
연락처 : (02) 391-2466 www.shekinah.or.kr